

외면성 행위증상 아동의 어머니역할에 대한 인식과 양육행동 탐색

A Recognition of Mother's Roles and Rearing Behaviors for a Child with Externalized Symptoms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학과
시간강사 신 숙 재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
Lecture : Suk Jea Shin

〈목 차〉

I. 서론	V. 논의 및 결론
II.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부 록
IV. 연구결과 및 해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be into the recognitions of mother's role and childrearing behaviors to lear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 and child with externalizing behaviors. The subjects were 4 mothers of 4- to 5-year-old externalizing children on Korean edition of CBCL. As a way of obtaining more information on mother-child interaction,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The data from interviews were presented in an edited descriptive for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Mothers treated children's wrong behaviors in a coercive manner.
- 2) It seemed that a mother's expectations to be a good mother result in coercive or poor behaviors on externalizing children.
- 3) Mother had difficulties in handling the children's behaviors and she attributed the reason of wrong behavior to the personality or intention.
- 4) Mothers seemed to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than one with externalizing children.

I. 서론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와 임상가 그리고 사회사업자들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날이 갈수록 청소년의 비행은 증가일로에 있다. 비행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하는가? 비행아의 주요 행동성향은 공격적이고 반항적으로 나타나는 외면적인 행동양상이다. 청소년의 비행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문제에서 공격성 같은 외면화된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비행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성향에 관심이 있는 여러 연구가나 임상가들은 반사회적인 행동성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영향을 중요시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60년대부터 활발히 해왔으며, 비행을 치료하기 위해 청소년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해왔다(Mulvey, Arthur & Reppucci, 1993).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다양한 가족치료 모델이 소개되면서 치료현장에서도 조심스럽게 적용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의 치료를 위해 가족치료를 시도한 결과도 발표가 되고 있다(남영옥, 1992). 외국의 치료적 모델과 기법을 우리나라 가족에 적용하면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나 우리의 문화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가족문제 발생의 원인과 유지요인, 그리고 가족문제의 형태를 밝히는 작업도 시급한 과제이다(손정영과 김순옥, 1991).

한편, 공격적인 행동은 초기 아동기에 시작하며 일단 시작하면 변화되기 어렵다고 한다(Loeber, 1982). Dadds(1987)는 문헌분석을 통하여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패턴은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형성되는 것 같으며, 가족성원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고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격성 같은 외면화된 행동양상의 보다 근원적인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애초기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의 일환으로 외면성 행위증상이 있

는 어린 아동의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의 여러 하위 체계 중에서 우선 부모자녀체계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자녀체계의 특성을 알기 위해 기존의 연구도구나 번안된 외국의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도구의 내용에 국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부모자녀관계의 본질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층면접법을 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질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행동문제 아동이 있는 우리나라 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새로운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외면적인 행위문제의 발달과 유지는 가족생활과 연관된다는 전제하에 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의 가족특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외면성 행위증상이 가족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지각을 통해 심층적으로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기대와 평가, 어머니의 현재 양육태도와 행동, 그리고 자녀의 반응에 대하여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면성 행위증상 아동의 행동특성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아동기의 증후군을 규명해 내려는데 있어 임상적 접근방식보다는 경험적 접근 방식을 이용하려는 여러 시도가 나타났다. Achenbach와 Edelbrock(1983)은 통제부족인 외면화(externalizing)와 통제과잉인 내면화(internalizing)로 불릴 수 있는 두가지의 폭넓은 증후군의 존재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다.

Achenbach는 심리장애가 발달단계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른 양상으로 표현된다는 가정하에 남녀 각각 만 4·5세, 6·11세, 12·16세의 세 연령 집단, 총 6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자료를 요인분석하였다. 그 결과 추출된 요인 및 각 요인의 구성항목들이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오경자 & 이혜련, 1990).

Achenbach와 Edelbrock(1983)의 Child Behavior

Check List를 국내에서 표준화시킨 행동조사표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4-5세 아동의 외면성 행위증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오경자 & 이해련, 1990). 남아는 과잉활동-공격성, 비행, 반항의 크게 3가지 하위증후군이 있다. 과잉활동-공격성은 과잉활동 증후군의 양상과 함께 남을 괴롭히고, 기물을 부수며,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하고 자주 싸우는 등의 공격행동이 섞여 나타난다. 비행은 도벽, 거짓말 등의 전형적이 비행행동이다. 반항은 학업부진, 학교에서 말을 안 듣고 자주 싸우는 반항적 행동이 포함된다. 여아는 과잉활동-공격, 반항, 호전적 요인의 3가지 하위증후군이 있다. 과잉활동-공격요인은 기물, 시설 등의 파괴행동, 공격적 행동과 함께 과잉활동 성향을 함께 나타낸다. 반항요인은 남을 위협하고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공격행동과 함께 자살에 대한 이야기, 자살기도, 낮은 자아개념, 도벽이다. 호전적 요인은 으시대고, 허풍을 떨며,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특징과 함께 남을 잘 놀리고, 남에게 잔인하게 굴며, 자주 싸우고, 말다툼을 잘하는 행동이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외면성 행위증상의 발달

아동은 타고난 기질이 있고 이런 선천적 성향이 사회화과정에서 여러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화되거나 감소, 혹은 변형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생애 초기에 아동의 정서 및 인지발달과 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일 것이다.

Martin(1981)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 대한 3년간의 종단적인 관찰연구에 의하면, 유아가 10개월 일때 어머니의 반응성이 부족한 경우 22개월 유아의 불복종 행동을 예언하였으며, 이는 다시 42개월 유아의 강압적인 행동과 어머니-자녀간에 강압적인 악순환의 발달을 예언하였으며, 이런 결과는 남아에서만 나타났다. 이에 대해 Martin(1981)은 해석하기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의 반응성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유아가 가지도록 하는 것과 같은데, 통제력을 가지는 것은 남아에게 있어서 어머니

에게 순종하고 강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아동의 외면성 행위증상의 발달에 있어서 아동 자신의 기질이나 행동성향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Martin(1981)의 연구에서도 10개월 유아의 개입행동이 42개월 유아의 강압적인 행동발달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과 행위장애발달을 연결시킨 연구를 보면, 생물학적으로 안달하는 기질을 가진 경우 공격성이 발달하고 행위장애아로 갈 위험성이 더 많음을 보고하기도 한다(Lamb, 1978). 김희조(1993)도 행위장애의 발달에 있어서 아동 기질의 중요함을 증명하였다. 한편 그런 기질의 유지와 공격적인 행동 성향으로의 발달은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태도와 행동과 관련된다고도 한다(Dadds, 1987).

Patterson(1982)에 의하면, 다루기 힘든 아동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지도하는 힘이 부족하고 훈육기술이 부족한 부모는 결국에는 강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게 되고, 공격적인 자녀의 행동을 부모가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함으로써, 결국은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을 부적적으로 강화하고 공격성을 고무시키게 된다고 한다. 한종극(1992)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단호하지 않게 훈육하거나 공격적으로 훈육하는 것이 청소년 비행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의 문제의 기원을 문헌연구를 통해 추적한 Dadds(1987)의 연구결과에서도 행위장애아의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다른 부모보다 자녀에게 신체적인 공격, 소리치기나 위협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결론 내리기를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가족과의 상호작용, 특히 아동과 양육자와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상호작용이 아동의 행동문제의 발달과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귀인이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가 있다(Dix, 1991; Geller & Johnston, 1995). Baden과 Howe(1992)에 의하면 행위장애아의 부모는 아동의 행동을 더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부모의 통제를 넘어선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원인에 귀인시키고 있다. 이런 인

지특성은 부모가 강압적으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부모가 아동의 공격성에 직면하게 되면 강압적인 행동을 포기하게 한다고 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외면성 행위증상을 보이는 만 4, 5세 아동의 어머니 4명이다. 4, 5세 아동이 선정된 이유는, 본 연구자가 외면성 행위증상 아동의 생애 초기의 양육경험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본 연구의 선정도구인 행동조사표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연령이 4, 5세였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외면성 행위증상 아동은 행동조사표를 이용하여 외면성 행위증후군에 해당이 되는 3개의 문제행동 증후군 중 2개 이상에서 백분위 90이상인 아동으로 선정되었다. 4, 5세의 외면성 하위 증후군은 남아의 경우는 과잉활동-공격성, 비행, 반항이며, 여아의 과잉활동-공격, 반항, 호전적 요인이다.

한국어판 부모용 행동조사표는 Achenbach와 Edelbrock(1983)의 Child Behavior Check List를 기초로 1990년도에 표준화 작업을 하여 현재 우리나라 규준이 마련되어 있다(오경자와 이해편, 1990).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에서는 백분위 98이상을 임상변주의 기준으로 삼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백분위 90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대상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나 대졸이며, 아버지는 사부직, 전문직, 경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고, 어머니는 1명이 교사이고 나머지는 가정주부이다. 경제수준은 상류나 중류로 보고하였다. 대상아동은 모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모든 가족이 부모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되어 있다.

2.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외면성 행위증상아동을 선정할 후 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역할에 대한 인

식과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반응을 알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내용은 사례별로 질적인 분석을 하였다.

외면성 행위증상아동의 선정은 95년 1월에 이루어졌다. 우선 외면성 행위증상아동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있는 일반 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4곳에서 지능수준이 정상이면서 공격적이고 산만한 4세 이상의 아동을 교사로부터 추천받은 다음, 교사용 행동조사표를 참고하여 외면적인 행동성향이 강한 아동을 선정할 후, 그 아동의 어머니에게 부모용 행동조사표를 의뢰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아동의 어머니 중에서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을 승낙한 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장소에서 본 연구자가 각각의 어머니를 개별적으로 만나 면접을 하였으며, 면접시간은 개인당 60분에서 9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사전 허락하에 모든 면담내용은 녹음이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면담이 끝난 후, 본 연구자가 아동의 행동문제를 중심으로 발생원인과 유지요인에 대하여 요약해 주고 어머니가 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다.

질문내용은 수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어머니역할의 인식을 알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만족감과 어려움, 좋은 어머니역할에 대한 기대와 현재의 어머니역할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양육행동을 알기 위해 어머니와 자녀가 같이 하는 활동, 애정표현, 칭찬 및 격려, 반응성, 훈육, 갈등상황의 측면에서 어머니 양육행동과 대상아동의 반응에 대해서 개방식으로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접에서 녹음된 모든 내용을 다시 풀어적었다. 내용은 어머니역할의 인식, 그리고 실제 양육행동과 아동의 반응이 서로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례별로 질적으로 요약분석되었다. 결과에는 사례별로 요약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내용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편집된 대상자의 말이 그대로 기술되었으며,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자의 해석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논의에서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상담을 전공하고 9년의 상담경력이 있는 아동상담 전문가 1명과 아동학을 전공한 석사 1명에게 본 연구의 원자료인 면담기록을 자세히 읽어 보도록 한 후, 본 연구의 결과에 제시된 사례요약이 원자료를 객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한 본 연구자의 해석이 타당한지, 그리고 논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의 공통적인 현상이 타당하게 분석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의뢰하였다. 평가결과 사례요약과 해석 그리고 논의사항이 원자료를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적이 된, 서술에서의 불확실한 개념과 논리의 비약이 보이는 부분은 수정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반영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사례 H

가족은 부모와 만 5세 여아인 H와 만 1세의 남동생이다. 부모 모두 고졸이며 아버지는 사무직, 어머니는 가정주부이다. H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키웠으며, H가 4살때 남자 동생을 낳았다.

1)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양육행동

H의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란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며 따뜻한 잔정과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따뜻한 잔정에 대한 기대는 어머니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머니 자신의 현재 역할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즉 일을 시작하면 끝을 잘 못맺으며, H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기를 바라면서도 동생 때문에 H를 많이 야단을 치게 된다고 한다. 반면에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어머니 역할은, H가 하기 싫다면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두는 태도이다.

어머니로서의 만족감은 자녀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이 의미있고 재미있으며, 어머니 자신이 하

고 싶었던 것을 아이를 통해 다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데서 느낀다. 한편 어머니로서의 어려움은 주로 H가 보이는 문세행동이다. “감정의 변화가 심하니까 금방 웃고 놀다가 화를 낸다거나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뭐 가만히 있는 동생을 때린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칭찬이나 애정표현은 H가 동생을 잘 돌봐주거나 정리정돈을 잘했을때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들을 때 하며, 착하다고 하면서 엉덩이를 두드려 준다.

어머니가 H랑 특별히 같이 하는 활동은 없으며 H가 요구할때만 잠깐 들어준다. “해달라는 거 할때도, 만들기 할때도 그냥 해달라고 할때만 하지 내가 해주고 그런 거는 없는거 같아요.” H가 하는 질문이나 사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주는 편이지만, 모르는 질문이나 요구가 많아지면 미룬다. 화를 내거나 우는 경우에는 그냥 두는 편이다

한편 H의 잘못된 행동은 방 어지르기, 거짓말하기, 어머니를 떠보기, 동생을 때려주기, 갑작스런 감정의 변화이다. 갑자기 화내는 행동은 그냥 두면 괜찮아지므로 풀어질 때까지 그냥 둔다. 그러나 그 밖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치거나 때려주기도 한다. 아버지는 화를 낼때 차근 차근 설명을 하지만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혼을 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화가 나서 나가 버리고 나중에 어머니를 나무라기도 한다.

동생과의 싸움은 동생이 먼저 건드리는 경우가 많으며 누나인 H도 처음에는 참다가 징징거리고, 그래도 동생이 계속 건드리면 동생을 사정없이 막 때린다. 그러면 항상 어머니는 H를 더 많이 혼내고 때려준다. “싸울때 누나를 더 많이 야단을 치는 거 같아요. 크니까... 그러면 항상 그래요. 엄마는 왜 ○○는 조금 야단치고 자기는 많이 야단치냐고 그러드라고요”

H는 동생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기복을 심하게 나타낸다. 동생이 H 물건을 만지거나 동생과의 싸움으로 H가 혼났을때, 필필 뛰고 울면서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쾅 닫고 소리를 막 지르며 화를 내면서 운

다. 그냥 두면 10분 후에 다시 웃으며 나온다고 한다. 이런 행동은 동생이 돌 되면서부터 나타났다고 한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당황을 했으나 이런 경우가 자주 있으며 H 스스로 풀어지니까 별로 힘들지 않아서 그냥 두게 되었다고 한다. H의 그런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각을 하고 있다. "제가 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물건에 손대는게 싫은데 동생이 그걸 만지니까……. 애가 성격이 빼떨어지고 모가 난 것 같고, 바로 잡아주긴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크면은 나아지려나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2) 연구자의 해석

본 사례의 어머니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은 어머니라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H를 그냥 두는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관심과 애정을 끌려고 하는 H의 행동을 인식하고 욕구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부족한 어머니의 소극적인 태도와 연결이 되고 있다.

이런 소극적인 어머니의 태도는, 어머니가 H와 같이 하는 놀이나 활동은 거의 없다는 사실과, 질문이나 요구 그리고 화내거나 우는 H의 행동에 대해 조금 들어 주다 미루어 버리거나 그냥 두는 식의 반응성이 부족한 어머니의 행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애정표현이나 칭찬도 동생을 잘 돌보았을 때 하는 등 조건부로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태도로 H는 어머니와 따뜻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면서, 대신에 동생 때문에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혼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동생에 대한 피해의식과 파양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어머니도 H의 잘못된 행동을 일단은 H의 성격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때마다 강압적으로 하거나 그냥 두는 등의 일관성이 없는 양극단적인 행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2. 사례 Y

가족은 부모와 국민학교 2학년인 언니와 대상아동

인 만 4세의 여자아이 Y이다. 부모 모두 대졸이며, 아버지는 경영인이고 어머니는 교직에 있다. Y는 19개월부터 유아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의 어린이집은 3번째 다니는 곳이다.

1)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양육행동

좋은 어머니란 자녀를 이해하면서도 절제를 지키고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고 기대하는데, 이런 기대는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엄하게 교육받은 것과도 연관된다.

어머니 자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평가하는데, 즉 예의바르도록 하며 도리에 어긋난 행동은 크게 야단을 치고 학교나 학원의 준비는 완벽하게 하도록 한다. 그러나 어머니 직장으로 인한 시간상의 문제로 함께 책보기, 만들기, 영화나 연극보기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로서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만족감은 어머니의 직장생활과 연관지어 어머니를 잘 이해해주고 사매끼리 잘 의지한다는 점에서 느끼고 있으며, 어려움은 직장으로 인하여 자녀와 지낼 수 있는 시간의 부족과 Y의 행동문제이다. 즉 Y가 집중을 잘못해서 어머니가 의도하는 교육이 뜻대로 안되고 있으며, Y의 주장이 강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의 말을 잘 안듣고 자주 부딪히게 된다는 점이다.

어머니가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것과 큰 아이를 너무 엄하게 키워서 자신감이 없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작은 아이인 Y를 키울 때는 의도적으로 애정표현을 자주하는 편이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등 큰 아이 키울 때보다 덜 엄격하게 키운다.

어머니가 Y와 같이 하는 활동은 산수학습지 지도와 일과 물어보기, 그리고 열흘에 1번 정도 책을 읽어주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다. 질문에 대해서는 끝까지 쉽게 설명해주려고 하며, 사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있는 것은 절대로 안사주고 설명으로 대처한다. 때를 쓰는 경우에는 엄하게 혼을 낸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리 Y의 사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고 학원의 과제는 Y의 뜻에 맡기기도 한다. 어머니는 Y가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따르고 있으며, 큰

아이는 어머니와 더 가깝다고 지각을 한다. “저희 집은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어요. Y는 지나치게 아버지를 더 우선으로 치거든요. 근데 그 우선이 좀 심해요. 굉장하…… 큰 애는 또 그래도 엄마가.”

Y의 잘못된 행동은 언니 것을 가진다고 떼쓰고 싸우기, 남의 물건 가져오기, 버릇없이 굴기, 책에 낙서하기, 옷정리 안하기, 식사때 움직이기이다. 이에 대해서 어머니는 처음에는 설명하려고 하나, 그래도 Y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큰 소리로 야단치거나 벌을 주고 때리기도 한다. 그런데 Y는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해서 어머니에게 크게 혼날 때가 종종 있다. “이해를 안하고 할때는 벌을 세우든가 매를 들거나 하죠.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 애가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고집을 많이 부리거든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크게 혼냅니다.” 최근에 Y는 말을 점점 더 안듣고 어머니는 자꾸 큰소리를 치게 된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는 Y를 큰 아이 처럼 엄하지 않게 키운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한다. 힘이 든 이유도 성격이 강한 Y 때문이라고 지각한다.

2) 연구자의 해석

본 사례의 어머니는 엄격하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좋은 어머니 역할이라고 기대하며, 그런 부분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런 기대와 평가는 Y가 고집을 피우고 어머니의 말을 안들었을 때, 어머니가 Y의 입장을 수용하기 보다 어머니 자신의 생각을 Y가 따르도록 엄하고 강압적으로 다루는 것과 연관되는 것 같다.

한편 어머니가 큰 아이를 키운 경험을 토대로 Y에게는 보다 의식적으로 애정표현과 칭찬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Y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녀가 같이 지내는 시간의 양이 적으며, 어머니는 아이의 요구에 대해 Y의 입장을 수용하기 보다는 어머니의 생각을 설명이나 엄한 대처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기주장이 강한 Y는 어머니와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강압적인 방식과 Y의 자기 주장적인 행동으로 모녀간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는데, 부모

태도간의 불일치도 Y가 어머니의 요구를 잘 따르게 하기 보다는 자기 주장적으로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또한 어머니는 이런 어려움이 Y의 성격 때문이라고 지각하고 있으며, 이런 지각이 어머니가 Y에 대해 강압적인 행동을 계속하도록 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생각된다.

3. 사례 M

가족은 부모와 국민학교 2학년인 오빠와 만 5세의 여아 M이다. 부모 모두 대졸이고 아버지는 행정관리직, 어머니는 가정주부이다. 어머니의 건강이 안좋아서 M은 태어난지 3개월 후에 외가로 보내져서 만 3세까지 외할머니가 키웠으며, 지금은 어머니가 돌보고 있다.

1)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양육행동

어머니가 생각하는 좋은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예의바르게 키우는 어머니이다. 또한 어머니는 어려서의 경험에 비추어서 아이를 독립심이 있게 키우고자 한다. “제 친정 아버지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자립심을 안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느끼고 부터는 아 나는 이 다음에 아이를 낳거든 절대 독립심 하나는 정말 갖게끔 키워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천을 잘하려면 어머니의 마음이 편해야 한다고 본다. 어머니로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큰 아이 학교생활에서 아이를 잘 준비시켜서 선생님께 성의를 보인 점이다. 반면 못하는 부분은 아이들을 돌볼 때 아버지가 지적한 것처럼 규칙적으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어머니의 건강이 안좋아서 아이에게 짜증을 부린 것이다.

어머니로서 만족감을 느낄때는 M이 기대 이상의 어른스런 행동이나 말을 했을때이다. 반면에 어려움은 주로 M의 요구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이다. 즉 어머니의 건강이 안좋은데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거나 어머니 외출 못하게 하기, 어머니에게 오빠만 좋아한다고 따질때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방식을 비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데서도 어려움이 많다. “내가 생각해도 참 잘한거 같은데 칭찬을 안 하니까 얼마나 해야할지.”

큰 아이 어려서와는 달리, 지금은 어머니가 의식적으로 큰 아이나 M에게 피부접촉을 통한 애정표현을 해준다. 그러나 어머니는 M의 애정표현을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한다. 어머니는 큰 아이를 키울때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보상심리와 학교숙제 때문에 큰 아이를 키우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M하고 같이 노는 시간은 없고 대신에 M에게 학습지와 피아노나 발레연습을 시킨다. 어머니는 이런 노력으로 M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M의 질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며, 때를 쓰거나 사달라고 할때는 끝까지 설득을 한다. “때 쓰거나 사달라고 할때는 굉장히 저는 애들 설득을 많이 하죠. 설득하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고 집에 오면 저는 앉혀 놓고 이야길 해요.”

M의 잘못된 행동은 오빠하고 싸우기, 어머니에게 필요 이상의 애정요구, 필요 이상으로 인사하기 등이다. 싸웠을때는 반성을 하게 한 후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나, 계속 고집을 피우고 싸울때는 한대씩 회초리로 때려주기도 한다. M이 필요 이상의 애정을 요구할때 어머니는 화를 낸다. “M은 굉장히 몸 비비길 좋아하더라구요. 근데 엄마는 너무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무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막 화를 냈죠.” M의 이런 행동은 M이 3세까지 외가에서 자랄때 외조부나 이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피부접촉에 길들여 있어서 지금도 어머니의 관심을 끌고자 많은 애정을 요구한다고 어머니는 지적한다.

2) 연구자의 해석

본 사례의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란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독립심이 있고 예의바르게 키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독립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기대로, 어머니는 M의 잘못된 행동과 요구적인 행동에 대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상세한 설명으로 대처하며, M의 유아같은 요구적인 행동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M의 질문이나 요구,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집요하게 설명하여 아이를 납득시키려고 한다. 이런 어머니의 설득으로 M 자신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M은 어머니의 애정과 인정을 얻기 위해 요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어머니는 M의 이러한 행동을 외가에서의 경험으로 생긴 잘못된 행동으로 지각하면서 M의 애정요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가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긴장이 나빠서 애정을 표현하다가도 M의 애정요구에 화를 내는 등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4. 사례 J

가족은 부모와 국민학교 1학년인 누나와 만 5세인 남자아이 J이다. 부모 모두 대졸이며 아버지는 전문직에 있으며 어머니는 주부이다. 어머니는 시댁에서 4, 5년 살았는데, 할머니와 일하는 아주머니가 J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면서 거의 J를 키우다시피 하였다. 지금은 분가하였고 매주 시댁을 방문한다.

1)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양육행동

좋은 어머니는 친구같이 편한 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은 비교적 살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다. 반면에 어머니로서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들에 대한 기대로 J가 학습면에서 못하면 자꾸 누나와 비교를 하면서 J에게 화를 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누나는 눈치껏 빨리 알아서 하는데, 어머니가 보기에 J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

어머니는 아이 키우기가 적성에 맞고 재미있어서 어머니 역할에 만족을 한다. 어려움은 J가 키가 작아서 신경을 써서 먹이려고 하는데 잘먹지 않고 억지로 먹이면 자꾸 도하는 것이다. 시댁에서 경제적인 것을 포함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시부모가 J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추어 키가 크고 똑똑한 손자로 만들기 위해 어머니

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머니는 J에게 애정표현을 많이 하며, 칭찬도 많이 해준다. J가 어린이 집에서 돌아오면 친구와 놀지만 항상 그 주변에는 어머니가 지키고 있으며 J가 기가 죽지 않도록 개입을 한다. 밖에 나가서 놀때도 항상 노는 것을 지켜본다.

J는 보호자가 있으면 친구와 잘노나 혼자서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장난감을 달라는 소리나 같이 하자는 소리를 못한다. J가 하는 질문이나 요구에 대해 어머니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여 들어준다.

누나랑 잘 싸우는데 주로 J가 누나 것을 빼앗다가 싸운다. 그럴때는 누나와 J가 같이 와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 어머니는 누나 말이 조리에 맞기 때문에 주로 J를 혼내는데 J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가끔은 때리기도 한다.

어머니가 보기에 J의 잘못된 행동은 누나것 가져가기와 남존여비 사상을 보일때, 즉 누나가 양보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때이다. 어머니가 남자 우선적인 주장을 못참는 것은 과거경험과 연관이 된다. “어린 게, 그래갖고 뭐든지 자기가 누나보다 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누가 주입시켰는지 좌우간 그건 제가 또 못참죠. 저희 친정에 딸만 셋이었고, 제가 또 남자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의식이 있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또 못참아요.”

어머니가 J랑 지내면서 최근에 가장 힘든 것은 먹을때 억지로 먹이려고 하면 토하고 결국은 먹지 않게 되는 경우이다. “개가 너무 안먹으니까 제가 막 화가 나갖고, 너 안 먹으면 집에서 나가야겠다, 우리 집 식구는 다 큰데 왜 너만 작냐고 피검사를 해봐야 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걸 꾸역꾸역 먹다 토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위협을 해도 J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할아버지를 믿고 위세를 부리는 것이며, 토하는 것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어머니는 느끼고 있다.

2) 연구자의 해석

본 사례의 어머니는 아이와 지내는 것을 재미있어

하며 실제 행동으로도 J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J의 요구에 대해서도 아이입장을 우선적으로 수용해준다. 그러나 어머니는 생각으로는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행동으로는 J를 과보호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태도에는 시부모와 어머니 자신의 기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외아들의 하나뿐인 손주라는 데서 오는 시부모의 기대를 어머니 스스로 부담스럽게 지각을 하며,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어머니는 J를 키가 크고 똑똑한 아들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기대가 큰 만큼 J에게 먹이기 위해서 협박과 강요를 하기도 하고, 똑똑하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똑똑하지 않은 것이 보일때는 필요 이상의 화가 생기기도 한다. 한편 먹을때 J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도 J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할아버지를 믿고 위세를 부리며 J는 별로 힘들어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다.

한편 어머니는 남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서 J의 남자 우월적인 태도를 보면 야단을 치는데, 이런 태도로 미루어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누나와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V. 논의 및 결론

외면성 행위 증상을 보이는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를 알기 위해 사례별로 어머니 역할의 인식, 어머니 양육행동과 대상아동의 반응이 어떠하며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때 어머니는 때리기, 소리치기, 위협이나 강요, 집요한 설득과 같은 억압적인 태도로 아동을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위장애아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아동과 양육자간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상호작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Dadds(1987)의 문헌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Dadds(1987)는 아동과 양

육자간의 공격적이고 강압적인 상호작용이 아동의 행동문제의 발달과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둘째, 좋은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어머니 자신의 기대가 외면성 행위증상을 보이는 대상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계속적인 강압적 행동이나 소극적인 행동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Y의 어머니는 엄격하게 키우는 것이 좋은 어머니이며, 이런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기대는 어머니가 Y의 주장을 수용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꺾고 어머니 뜻대로 하도록 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사례 M의 어머니는 독립심있게 키우는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라고 기대하며, M의 요구적인 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며 그런 행동에 대해서 M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상세한 설명으로 집요하게 설득을 하며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한다. 사례 J에서는 시부모의 기대가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기대와 행동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부모의 기대대로 J의 키를 크게 하고자 먹이려고 협박과 강요를 하고 있으며, 기대대로 똑똑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J의 학습속도와 태도에 대해서 누나와 비교하여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다. 한편 사례 H는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기대하면서, 어머니는 H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고 있다. 이런 어머니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H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어머니와 따뜻하고 좋은 경험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 보인다.

셋째, 모든 어머니가 호소한 어려움은 아동의 행동문제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H는 감정의 심한 변화, 동생 때리기, 거짓말이며, Y는 자기주장이 강한 것이며, M은 애정확인과 같은 요구적인 행동이며, J는 잘먹지 않고 토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이런 행동을 아동의 성격이나 의도로 귀인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탓으로 귀인을 시키는 경우에는 아동이 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아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모는 대개 강압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것 같다. 이는 Baden과 Howe(1992)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즉 행위장애아의 부모는 아동의 행동을

의도적이고 부모의 통제를 넘어서는 안정적인 원인에 귀인을 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부모는 아동의 행동을 비난하며 강압적으로 대처하고 때로는 아동의 공격성에 직면하게 될때 철회하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아동이 외면성 행위증상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어머니의 어려움은 아동의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예상이 되나, 본 연구 대상아동이 4, 5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 적대적이거나 공격행동은 발달이 안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에 부모의 요구나 의사를 거부하거나 말 안듣기, 또는 유아다운 요구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일반적인 행위장애아의 구체적인 증상과 같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문제행동 방향이 외향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외향적인 행동특성은 후에 대상아동이 성장하여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고, 아동의 신체적인 힘이 더 생기고, 타인에 의해 좌절되는 경험이 더 많아짐에 따라 신체적인 공격이나 심한 반항행동으로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넷째, 어머니가 외면성 행위증상을 보이는 대상아동보다는 대상아동의 형제와 더 사이가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사례 H와 M에서는 대상아동이 지각하기를 어머니가 자신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고 자신은 차별대우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 Y와 J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하기를 대상아동보다 상대형제와 더 가까우며 잘 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와 자녀간의 관계가 형제에 따라 다른데, 그런 차이가 생긴 이유가 각 사례에서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사례 H를 보면, 부모가 모두 남아를 선호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부모가 형제 사이를 개입할때도 여아인 H보다는 남동생을 위주로 개입하고 있다. 여아인 M의 경우는, 어머니와 M간에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M이 만 3세까지 외가에서 자랐다는 사실과, 그 후 부모가 키우고 있으나 어머니가 M의 피부 접촉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태도에서 추론이 된다. 반면에 어머니는 손위인 남자형제에 대해서는 잘키

우려는 집착이 강해 보인다. 여아인 사례 Y의 경우는 위에 여자형제가 있는데, 윗 형제는 어머니의 요구에 잘 순종하는 편이나 Y는 자기 주장이 강해서 어머니의 요구에 반항을 하기 때문에 잘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윗형제는 어머니와 한편이고, Y는 자기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아버지와 한편이라고 한다. 남아인 사례 J의 경우는, 어머니가 과거경험으로 인하여 남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고 그리고 J의 순위 여자형제가 어머니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J보다는 윗형제와 더 잘지내고 있다.

한편 어머니가 대상아동의 형제보다 대상아동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은 아동의 외면적인 성향의 기질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나 본 사례연구에서는 사례 Y를 제외하고 모든 대상 아동이 어려서 기질이 순하였다고 한다.

각 사례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대상아동이 지각하기를 상대형제가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더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면, 대상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적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정서적 어려움은 대상아동과 어머니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과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과 해석 및 일반화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례수가 너무 적고 또한 일반적인 유병률과는 달리 여아가 더 많이 선정된 점을 고려할때 본 연구결과를 외면성 행위증후군의 임상집단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대상에만 국한시켜서 탐색적인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아동행동 조사표만을 사용하였고, 아동행동 조사표에서 외면성 행동문제 점수 뿐만 아니라 총점수도 높게 나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이 순수하게 외면성 행위증후군에 해당되는 임상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면접에서 얻어진 자료만을 수차례 읽으면서 실제로 얻어진 정보에 근거해서 분석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나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피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의식적인 보고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4-5세 외면성 행위증상아 가족의 부모자녀 체계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머니가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원가족과의 경험이 중요했음을 부분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와 부모역할 수행이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알아보는 작업도 흥미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녀 관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위체계와 각 체계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반응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상호작용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관찰연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넷째, 외면성 행위증후군에 해당이 되는 대상을 얻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행동조사표에서 다른 문제 증후군의 점수는 낮고 외면성 행위증후군의 점수만이 높은 대상을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동조사표 외에 다른 선정도구도 같이 병행하면 더 타당한 대상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김희조(1993).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증상, 부부관계 만족도, 양육 스트레스가 품행장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2) 남영옥(1992). 비행 청소년을 위한 가족치료에 있

- 어서 구조적 접근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 손정영 & 김순옥(1991). S.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의 한국적 재조명.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 345-366.
 - 4) 오경자 & 이해련(1990). 한국어판 CBCL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
 - 5) 한종극(1992). 부모의 훈육, 자녀의 성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6) Achenbach T.M. & Edelbrock C.S.(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t of Psychiatry.
 - 7) Baden, A.D. & Howe, G.W.(1992). Mother's attributions and expectancies regarding their conduct-disorder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 467-485.
 - 8) Dadds, M.R.(1987). Families and the origi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Family Process, 26, 341-357.
 - 9) Dix, T.(1991). The affective organization of parenting : Adaptive and maladaptiv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3-25.
 - 10) Geller, J. & Johnston, C.(1995). Predictors of mothers' responses to child noncompliance : Attributions and attitud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 272-278.
 - 11) Loeber, R.(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46.
 - 12) Martin, J.A.(198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onsequences of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 A microanalytic approa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 (serial No. 190).
 - 13) Mulvey, E.P., Arthur, M.W. & Reppucci, N.D. (1993).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cy : A review of the research. Clinical Psychological Review, 13, 133-167.
 - 14) Patterson, G.R.(1982). Coercive family process. Eugene OR : Castalia Press.
 - 15) Perry, D.P., Perry, L.C. & Boldizar, J.P.(1990). Learning of aggression. In M. Lewis & S.M. Miller(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pp.135-146), N.Y. : Plenum.

부 록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과 양육행동에 관한 범주와 질문 내용)

1.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인식

1) 기대

- 어떤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2) 역할에 대한 평가

- 어머니로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긍정/부정)

3) 만족감

- 자녀를 키우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은 무엇입니까?

4) 어려움

- 자녀와 지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2. 어머니의 양육행동

1) 어머니와 자녀가 같이 하는 활동

- 자녀와 같이 하는 활동이나 놀이가 있습니까?
- 있다면 무엇이며 주로 언제 얼마나 하십니까? 느낌은?

2) 애정표현 및 칭찬

- 애정표현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 칭찬이나 격려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3) 반응성

- 자녀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 자녀가 무언가를 사달라고 요구할때 어떻게 하십니까?
- 자녀가 화를 내거나 울때 어떻게 하십니까?

4) 훈육

- 어떤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고,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때 어떻게 하십니까?
- 형제끼리 싸울때 어떻게 하십니까?

5) 최근의 갈등상황

- 자녀랑 지내면서 어떤 경우에 가장 힘이 들고 어려움을 느끼십니까?(최근에)
- 그런 경우 어머니는 자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녀의 반응은?
-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 그런 일이 있는 후 어머니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느낌은?